



김 유 용
서울대학교 교수

“
사료곡물가격상승에서
보는 희망
”

2006년부터 시작된 국제 곡물시세의 상승은 처음에는 옥수수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원료사료가 되는 모든 곡물들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가뭄의 영향으로 소맥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나라 사료산업계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계까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료용 곡물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원료사료 가격의 인상뿐만 아니라, 해상운임의 상승, 환차손의 발생 등의 삼중고로 축산분야 전반에 심각한 주름살을 만들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도 없는 암울함의 연속이겠지만, 이 같은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대비를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다.

미국에서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생산이 시작되면서 옥수수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사료용 곡물로 옥수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축산물 생산비에서 상

대적 비교우위에 있었지만, 소맥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 같은 비교우위도 사라졌기에 우리나라 축산분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 생각되며,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축산물생산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어서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나라 축산업이 몰락한다는 극단적인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어려움은 지금까지 상당기간 축산분야의 호황이 지속되어서 우리나라 사료산업계나 농장들이 생산비의 절감이나 생산성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비로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대처하고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다 발전하는 산업을 위한 “성장통”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싶다.

우선 사료산업계에서는 옥수수 대두박 위주의 배합사료 이외에는 사료도 아니며 미국산 옥수수만이 진정한 옥수수라는 자가당착적인 논리로 배합사료를 생산하다 보니 생산비가 턱없이 높아지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옥수수가 원산지에 의해 품질이 결정되기

보다는 품질 그 자체에 의해 품질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일부회사들간의 경쟁도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논의대상도 되지 못하는 주제가 되고 말았다. 또한 사료를 생산하면서 “노랗고 찹찹한 사료”를 사료회사들이 주장하여 양축가들의 뇌리에 사료색깔이 노랗지 않으면 사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사료업계에서 깊이 반성해야 하는 문제다.

사료의 색깔이 어떻든 동물이 잘 자라면 충분한 것 아닌가? 본인은 열대작물의 부산물을 사용하여 사료 kg당 15~20원이 저렴한 사료를 만들어 동물에게 급여해도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을 실제로 여러 실험을 통하여 증명해왔지만, 오랫동안 노랗고 찹찹한 사료에 길들여진 양축가들을 설득하는데 정말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았다.

본인이 사료업계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검증된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이 싼 원료사료를 이용하여 동물의 성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좀 더 싼 가격의 사료를 양축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란 것이다.

양축가들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산업이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호황기가 지속되다 보니 생산성향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안이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장은 땅값이 아무리 비싼 농장일지라도 흑자도산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

의 어려움에 처한 것을 도외시하면 안된다.

외국에서 제시되는 동물의 사양방법들을 국내에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적용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특정 농장에서 일어난다면 그 농장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과도한 입분이 사료의 급여나, 이유자돈사료 또는 육성돈사료를 가지고 비육돈까지 급여하는 어리석은 일부 양축가들이 있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사료업체들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많은 양축가들이 생산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분이 사료의 급여를 중지하거나 자돈사료의 급여를 줄여서 사육두수는 그대로인데 자돈사료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까지 축산분야의 많은 부분에서 무시되었던 원칙이 다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때 우리 축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거듭나리라 믿는다. 사람들이 흔히들 “위기 뒤에는 기회” 또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 현재의 축산업계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는 이유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경험한 많은 일들 중에 얻어진 이 같은 격언들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닿는 것은 머지않아 우리 축산업계가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 좋은 시절을 맞는 날이 있으리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